

남구청 개청



연중 기획시리즈

‘포용과 개방’ 평화·문화도시 남구의 위대한 자산

8 평화·문화도시 남구의 가치와 성과

올해는 6·25전쟁 75주년과 유엔 창설 8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유엔평화문화특구를 품은 남구로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자유의 무게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문화도시로서 남구의 가치와 성과를 짚어본다.

#위트컴 장군 조형물이 남구에 온 사연

“평화공원 원형광장은 위트컴 장군의 조형물을 위해 미리 조성해 놓은 게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로 조형물 건립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위트컴 장군 조형물의 디자인과 제작을 책임진 권치규 조각가가 밝힌 소감이다. 하지만 장군의 조형물 조성 후보지는 당초 남구가 아니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이방인’ ‘전쟁고아의 아버지’ 등 많은 현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산에 장군의 조형물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조형물은 원래 장군이 영면해 있는 유엔기념공원 내 건립이 목표였다. 하지만 11개국 안장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했

다. 차선책으로 부산시민공원이 후보지로 거론됐다. 부산시민공원은 과거 미군 하야리아부대 시절 장군이 머물렀던 관사가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었지만 부산시는 특정한 동상을 조성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결국 위트컴희망재단은 남구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남구는 포용적인 자세로 요청을 수락했다. 이후 조형물 프로젝트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시민성금도 캠페인 8개월 만에 초과 모금됐다. 만일 남구의 개방적이고 포용적 태도가 없었더라면 위트컴 장군 기념물은 지금도 완성되지 못했을지 모를 일이다.

한편 부산지방보훈청은 생활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매달 ‘이달의 현충시설’을 선정·홍보하는데 7월의 현충시설로 평화공원 내 위트컴 장군 조형물을 선정했다.

#남구가 품은 비운의 독립운동가

남구국민체육센터1관 뒤편 산자락에 자리 잡은 안성녀(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여사의 묘는 백운포 천주교묘원 내에서 가장 눈에 띈다. 검은 오석 묘비와 태극 문양의 화강암 돌레석이 봉분을 감싸고 묘 앞으로 바닥석과 석축을 쌓아 위엄을 더하고 있다. 한눈에 봐도 민족 영웅 안중근의 여동생 묘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사의 묘가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6·25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란 왔다가 1954년 노환으로 별세한 안 여사는 영도 청학동에 묻혔다가 유족들에 의해 1974년 이곳 천주교 묘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안성녀 여사는 독립운동 공적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가 현충원에 가지 못하고 50년간 백운포 천주교묘원에 잠들어 있다. 남구는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어 온 여사의 수년째 돌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여사의 묘를 재정비하고 여사의 가족들과 관계자들이 미사를 진행하는 모습.

원으로 이장됐다. 하지만 여사는 공적자료 부족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묘소는 국가기관의 관리를 전혀 받지 못했다. 존재조차 잊힌채 수십년간 방치되어 여사의 묘소는 처참할 정도로 황폐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남구는 국가보훈부를 대신해 여사의 묘를 유족들과 함께 관리하게 됐다. 평화와 보훈에 있어 남구의 포용성이 또 한번 기적을 만든 것이다. 묘소 정비 이후 남구는 매년 3·1절과 여사의

기일에 맞춰 추모식과 참배행사를 갖고 여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글로벌 관광자원 UN평화문화특구

지난 2023년말 남구의 UN평화문화특구가 전국 181개 특구 가운데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명실공히 남구가 ‘평화와 문화의 도시’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남구는 지난 2010년부터 UN기념

공원을 중심으로 57만 4,000㎡ UN평화문화특구를 운영하면서 매년 1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켰다. 평화도시의 브랜드를 강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특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남구는 평화를 거시적 관점에서만 다루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2023년 ‘남구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참전유공자를 포함

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000여명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남구의 이런 노력은 부산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책 읽는 남구·남구문화재단 출범 등 ‘남구발 문화혁명’

〈10월 출범 예정〉

9 남구의 문화행정

K-팝으로 시작한 한류가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가 경제이자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남구도 문화자치를 선도할 남구문화재단 설립과 제2의 노벨문학상 배출을 꿈꾸는 ‘책 읽는 남구’ 등 문화 진흥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벨문학상 꿈꾸는 ‘책 읽는 남구’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외면받아 온 인문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구도 이를 계기로 ‘책 읽는 남구’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도서관 문화의 확산이다.

문화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암·감만 지역의 문화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우암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사업비 102억원을 들여 연면적 1,882㎡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우암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갈증을 푸는 오아시스이자 주민들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구도서관은 현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및 어린이북합문화공간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연말까지 환기·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성능 및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아날로그 공간과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남구를 대표하는 친환경 공공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남구도서관의 장기 휴관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올 봄부터 남구청 야외광장과 잔디광장에 임시도서관과 팝업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문현역에 최근 무인대출·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해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남구 달빛 야외도서관 축제는 오는 초가을(9월 5일 예정) 평화공원에서 열린다.

#남구문화재단 출범 ‘눈앞’

남구의 문화복지를 한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남구문화재단이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선8기 공약으로 시작된 남구문화재단 설립은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 대표이사 등 임원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업무공간으로 사용할 3층 건물(옛 남구지매안심센터 건물)도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했다.

문화행정전문기관이자 문화플랫폼 역할을 맡을 남구문화재단 설립은 ‘남구문화자치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남구문화재단은 남구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구만의 독창적인 문화 자산 발굴과 동시에 남구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복지를 확대한다. 더 나아가 문화 고도화를 통해 청년 유입 및 문화기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구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지난해 11월 21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장기 휴관에 들어간 남구도서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팝업도서관과 야외도서관이 운영중이다. 사진은 팝업도서관 개관식